

# 판타스틱4 vs 슈퍼트리오... '골클 3년 전쟁' 종지부 찍는다

(커리-롭슨-듀란트-그린)

(어빙-제임스-러브)

(골든스테이트 vs 클리블랜드)

## '역대급' NBA 파이널 관전 포인트

나란히 우승 한 번씩... 파이널 삼세판 주축선수 부상 없이 100% 전력 격돌 '킹' 제임스·이적생 듀란트 활약 기대



2016~2017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파이널에서 맞붙는다. 두 팀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리클라이너(골든스테이트 홈구장)에서 열리는 1차전을 시작으로 7전4승제의 진검 승부를 펼친다. 이번 파이널에선 '역대급' 명승부가 예상되는 까닭에 1차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전 세계 농구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 ● 왜 '역대급' 파이널인가?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는 3시즌 연속 파이널에서 만났다. NBA 역사상 같은 상대끼리 3시즌 연속 파이널 맞대결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2015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4승2패), 2015~2016시즌에는 클리블랜드(4승3패)가 우승을 나눠졌다.

두 팀은 이번 파이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거침이 없었다. 서부 1위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PO) 1라운드부터 콘퍼런스 결승까지 단 한 차례의 패배도 없이 12연승을 질주했다. 동부 2위 클리블랜드는 동부 1위 보스턴과의 콘퍼런스 결승 3차전에서 108-111로 패하기 전까지 지난 시즌부터 PO 13연승을 달렸다. 이는 역대 NBA PO 최다연승기록이다. 올 시즌 PO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팀과 역대 PO 최다연승 팀의 격돌이다.

라인업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골든스테이트는 스티븐 커리(29)-클레이 톨슨(27)-케빈 듀란트(29)-드레이먼드 그린(27)으로 이어지는 '판타스틱4'를 보유하고 있다. 클리블랜드에는 카이리 어빙(25)-르브론 제임스(33)-케빈 러브(29)의 '슈퍼트리오'가 버티고 있다. 이들 7명은 모두 이번 시즌 NBA 올스타전에도 출전했다. 역대 NBA 파이널에서 7명 이상의 올스타가 나선 것은 1961~1962시즌 보스턴-LA 레이커스와 1982~1983시즌 필라델피아-LA 레이커스를 비롯해 이번이 3번째다.

주축선수의 부상도 없다. 지난 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의 주전 센터 앤드루 보거트(33-현 클리블랜드)가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지만, 올 시즌에는 두 팀 주축선수들 가운데 부상자가 없다. 100%의 전력으로 맞붙는다는 얘기가. 2010년대 최강팀을 가리는 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킹' 르브론의 지배력은 여전히가?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은퇴)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지배자였다면, 2000년대의 지배자는 단연 르브론 제임스다. 제임스는 NBA 최초로 7시즌 연속 파이널에 출전한 선수이자, 2개 팀(마이애미·클리블랜드)에서 4차례씩 파이널을 경험한 선수다. 또 PO 개인통산 득점에서도 5995점으로 조던(5987점)을 넘어 역대 1위로 등극했다. 이번 파이널에서 제임스는 역대 최초로 PO 개인통산 6000점을 넘어서게

골든스테이트	항목	클리블랜드
67승15패·승률 0.817 (서부 1위·전체 1위)	시즌 성적	51승31패·승률 0.622 (동부 2위·전체 공동 5위)
36승5패(1위)	홈 성적	31승10패(공동 2위)
115.9(1위)	평균 득점	110.3(4위)
49.5%(1위)	야투 성공률	47.0%(5위)
12.0개(4위)	3점슛	13.0개(2위)
44.4개(7위)	리바운드	43.7개(12위)
30.4개(1위)	어시스트	22.7개(13위)
9.6개(1위)	스틸	6.6개(30위)
14.8개(22위)	턴오버	13.7개(14위)

\* 괄호 안은 전체 30개 팀 중 순위

골든스테이트	플레이오프	클리블랜드
4승(vs포틀랜드)	콘퍼런스 8강	4승(vs인디애나)
4승(vs유타)	콘퍼런스 4강	4승(vs토론토)
4승(vs샌안토니오)	콘퍼런스 결승	4승1패(vs보스턴)

된다.

2003~2004시즌 데뷔한 제임스는 14년차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선 74경기에 출전해 평균 26.4점·8.6리바운드·8.7어시스트를 올렸는데,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는 커리어하이 기록이다. 프로 경력 10년을 훌쩍 넘어서도 개인기록에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다. 괜히 '킹'이 아니다. 제임스의 집중력은 PO에서 더욱 높아지는데, 올 시즌 PO 13경기에서 평균 32.5점을 뽑았다. 정규리그보다 무려 6점이나 높은 수치다.

현재 전문가들은 대부분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점치고 있다. '농구의 왕'으로 불리는 제임스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보란 듯이 클리블랜드를 우승으로 이끌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 듀란트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듀란트의 존재다. 듀란트는 리그에서 제임스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포워드다. 그가 정든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올 시즌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이유는 우승 반지 때문이다.

그동안 NBA에선 우승을 위해 이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거 칼 말린과 게리 페이튼(이상 은퇴)은 우승을 위해 2003~2004시즌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파이널까지 올랐지만, 디트로이트에 가로막혀 좌절했다. 반대로 케빈 가넷과 레이 앨런은 2007~2008시즌을 앞두고 폴 피어스(이상 은퇴)가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보스턴으로 이적해 '빅3'를 구축한 뒤 우승 반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듀란트는 지난해 여름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할 당시 오�클라호마시티 프랜차이즈스타의 가치를 저버린 채 우승을 위해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다. 일단은 2011~2012시즌 이후 5시즌 만에 파이널에 올라 그토록 원했던 우승 반지를 낄 기회를 잡았다. 스스로도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골든스테이트는 간판스타 커리가 큰 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듀란트에게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적잖은 부담을 안고 파이널에 나서는 듀란트가 제임스와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냐는 우승 반지 획득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가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맞붙는다. 2014~2015시즌에는 골든스테이트, 2015~2016시즌에는 클리블랜드가 우승이니 이번 대결은 삼세판의 승자를 가리는 진검승부나 다름없다. 클리블랜드 르브론 제임스(왼쪽)와 골든스테이트 스티븐 커리가 그 선봉장이다. 누가 이기든 개인은 물론 팀에도 영광의 역사로 남게 된다.

AP뉴시스

## 커리의 에어볼 굴욕부터 제임스의 위닝 블록슛까지

### ■ '골클 3년 전쟁' 지난 2시즌 파이널 명장면

커리, 마우스피스 던졌다가 구설 오르기도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2014~2015시즌부터 3시즌 연속 파이널(7전4승제)에서 격돌하게 됐다.

2015년에는 골든스테이트가 4승2패, 2016년에는 클리블랜드가 4승3패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두 팀의 NBA를 대표하는 스타 스티븐 커리(29-골든스테이트)와 르브론 제임스(33-클리블랜드) 중 올해는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팀은 지난 두 시즌 동안 치열한 파이널 승부를 펼쳤다. 2014~2015시즌부터 살펴보면 1·2차전 모두 연장을 치를 끝에 1승씩 나눠졌었다. 특히 2차전 연장이 눈길을 끌었다. 클리블랜드는 연장 막판 92-93으로 1점을 뒤졌다. 공격권을 쥔 클리블랜드는 제임스의 3점슛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리바운드를 빼앗겼다. 그러나 골든스테이트의 실책 덕분에 공격권을 되찾아 94-93으로 역전했다. 수비에 나선 클리블랜드는 커리가 시도한 슈트가 람도 맞지 않는 행운을 누렸다. 슈팅에 일가견이 있는 커리의 '에어볼'이라 더 화제가 됐다. 이 볼을 리바운드를 선수는 제임스였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95-93으로 이겼다.

지난 시즌 5차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커리의 행동과 스티븐 커 감독의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됐다.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앞서던 골든스테이트는 5차전에서 97-112로 패했다. 경기 막판 벤치로 물러난 커리는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마우스피스를 본부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정조준에 실패해 관중이 마우스피스에 맞았다. 경기 후 커 감독이 커리의 잘못된 행동을 용

하는 발언을 해 큰 비난을 샀다. NBA 사무국은 커리와 커 감독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 커리는 의도적으로 관중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지난 시즌 7차전에서 제임스가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블록슛으로 찬사를 받았다. 경기 종료 1분50초를 남기고 골든스테이트가 속공에 나섰다. 커리의 패스를 받은 안드레 이귀달라가 레이업슛을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제임스가 백보드를 때리기 직전에 있던 볼을 쳐냈다. 두 팀이 경기 종료 4분40초 전부터 89-89에 머무르며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이라, 이귀달라가 득점에 성공했다면 골든스테이트로 승부의 추가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임스의 블록슛으로 기세가 산 클리블랜드가 결국 93-89로 이겼다. 시즌 전적 1승3패로 뒤지던 팀이 3연승으로 우승트로피를 가져간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최홍식 기자 ghyong@donga.com

골든스테이트				클리블랜드			
스티븐 커리 (29·포인트가드)	클레이 톨슨 (27·슈팅가드)	케빈 듀란트 (29·스몰포워드)	드레이먼드 그린 (27·파워포워드)	2016~2017시즌 정규리그 성적	카이리 어빙 (25·포인트가드)	르브론 제임스 (33·스몰포워드)	케빈 러브 (29·파워포워드)
79경기	78경기	62경기	76경기	출전	72경기	74경기	60경기
25.3점	22.3점	25.1점	10.2점	평균 득점	25.2점	26.4점	19.0점
46.8%	46.8%	53.7%	41.8%	야투 성공률	47.3%	54.8%	42.7%
41.1%	41.4%	37.5%	30.8%	3점슛 성공률	40.1%	36.3%	37.3%
4.5개	3.7개	8.3개	7.9개	리바운드	3.2개	8.6개	11.1개
6.6개	2.1개	4.8개	7.0개	어시스트	5.8개	8.7개	1.9개

\* 괄호 안은 나이·포지션

## '더 샷' 탄생시킨 시카고-유타 2년 전쟁

### ■ 기억에 남는 2시즌 연속 파이널 매치 사례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역사상 3시즌 연속 같은 상대끼리 격돌하기는 올해 골든스테이트-클리블랜드전이 처음이지만, 2시즌 연속 동일한 상대가 맞붙은 경우는 12차례나 된다.

1950~1960년대를 휩잡은 보스턴은

1958~1959시즌부터 1965~1966시즌까지 8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 때 1959~1960시즌과 1960~1961시즌 파이널에선 잇달아 세인트루이스(현 애틀랜타)와 만나 모두 이겼다. 또 오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온 LA 레이커스와는 2차례(1961~1962·1962~1963시즌, 1964~1965·1965~1966시즌)에 걸쳐 2시

즌 연속 파이널에서 대결해 모두 우승했다. 이번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의 격돌 전에는 마이애미와 샌안토니오가 2013~2014시즌, 2014~2015시즌 연속에서 파이널 승부를 치렀다. 2013~2014시즌에는 르브론 제임스(현 클리블랜드)-드웨인 웨이드(현 시카고)-크리스 보쉬(F.A)의 삼각편대를 보유한 마이애미가 래리 오브라이언 컵(파이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다음 시즌에는 샌안토니오가 카와이 레너드와 팀 던컨(은퇴)을 앞세워 설욕했다.

NBA 역대 최강팀으로 꼽히는 1990년대의 시카고는 1996~1997, 1997~1998시즌 잇달아 유타와 파이널에서 대결했다. 시카고는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 스킵 피넬, 테니스 로드먼으로 트리오는 구축해 NBA 역대 최고의 콤비를 꼽히는 칼 말론-존 스타클리(이상 은퇴)의 유타와 명승부를 펼쳤다.

특히 1997~1998시즌 파이널은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로 팬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조던의 '더 샷' 때문이다. 조던은

3승2패로 앞선 6차전 종료 5.2초 전 브라이언 라셀(은퇴)의 수비를 제치고 역전 점프슛을 성공시키며 87-86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시카고는 2번째 3시즌 연속 우승을 일궜다. 조던의 이 점프슛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또 조던이 시카고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뛰 경기였기에 여운을 더하고 있다.

정지국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